

정부조직 개편안 이번 주말까지 마무리

해수부 부활...미래창조과학부 신설 중기위·정책컨트롤 타워 설치 주목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이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오는 17일 부처별 업무보고가 끝난다는 점에서 이르면 18일, 늦어도 이번 주말까지 정부조직 개편안이 발표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국무총리 후보 지명자 발표가 20일 정도에 이뤄져야 하는 만큼, 이번 주를 넘기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조직 개편안은 대선 공약으로 제시된 해양수산부 부활과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정보통신 생태계 전담조직 신설 등이 주요 골자가 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관심이 가는 부분은 신설될 미래창조과학부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연구 분야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미래사회 변화

예측을 토대로 한 국가정책 수립, 지식생태계 구축·보호 지원, 융합형 연구공동체 지원 등의 업무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박 당선인은 지난 10일 '과학기술인 신년인사회'에 참석, "과학기술을 국정운영의 중요 기조로 삼아 창의성에 기반한 새로운 성장정책을 펴겠다"면서 "새 정부에서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 정책과 창조경제 활성화를 전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연스럽게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 영역은 미래창조과학부로 오게 될 것이 확실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만을 담당하게 될 전망이다.

창조경제 활성화라는 점에서 현 지

식경제부의 명칭 및 업무 조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당선인이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기기 등 정보통신 생태계를 총괄해 창조경제의 기반을 마련한 전담조직 신설 적급 검토를 공약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 전담조직이 부(部)가 될지,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은 위원회 형식이 될 지는 미지수다.

다만 어떤 형태로든 정보통신 관련 신설 조직이 생길 경우 현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에 대해 애정을 보인 만큼, 현재의 중소기업청(지식경제부 외청)과 중소기업비서관(대통령실)으로 구성된 중소기업 정책 라인이 중소기업위원회(국무총리 직속)와 중소기업 수석(대통령실)으로 격상될 지도 주목된다. 이와 함께 박 당선인이 '정부부처간 칸막이' 문제를 지적하며 강조한

'정책 컨트롤타워' 설치 여부도 관심사다. 일단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경제부총리'가 부활하고 박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복지정책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복지부총리'를 신설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외교와 안보 컨트롤타워는 청와대에 신설되는 국가안보실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모든 부처를 업무 연관성에 따라 4~5개 그룹으로 나눠 총괄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복지 분야는 사회보장위원회, 과학기술 분야는 미래창조과학부가 맡는 방식으로 4~5개 정책분야별로 그룹을 짜 업무 효율을 높이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아예 그룹별로 '총괄장관'을 뒀아 한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특임장관실은 폐지 쪽에 무게 중심이 옮겨지고 있다. 특임장관의 임무가 청와대 정부수석과 상당 부분 중복돼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인수위, 전문위원 35명 추가 임명

“사실상 자문위 부활” 조직 슬림화 방침 역행 정치권 비판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11일 분야별 외부 전문가 35명을 전문위원으로 추가 임명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임명된 28명에 더해 전문위원 수는 63명으로 늘었다. 인수위 전체적으로는 인수위원 26명과 정부부처 공무원 53명을 포함해 모두 152명이 됐다.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자문위원단이 부활한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당초의 인수위 조직 슬림화 방침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전문위원과 자문위원은 성격이 다르다. 전문위원 추

가 임명은 인수위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날 추가로 임명된 전문위원 중에는 박근혜 당선인의 선대위 국민행복추진위에 몸담았던 인사와 당선인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에도 소속된 인사가 각각 14명이 포함됐다. 두 조직에 모두 참여한 인사가 9명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외교국방통일본부와 전문위원으로 임명된 이정민 연세대 교수와 홍윤표 한양대 교수는 행추위 외교통일추진단과 미래연에서 모두 활동하면서 박 당선인의 공약미션 작업에 관여했다. 경제2분과의 윤창범 김

엔장 법률사무소 고문은 행추위 방송통신추진단장으로, 윤성규 전 국립한경과학원 원장은 지속가능국가추진단장으로 활동했으며, 홍순직 전주비전대 총장은 방송통신추진단에 소속돼 있었다. 배준구 경성대 교수와 오창균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발전추진단, 김재춘 영남대 교수와 나승일 서울대 교수는 행복교육추진단과 미래연에 모두 몸담았다. 윤종록 연세대 교수와 정영은 이화여대 교수도 각각 창의산업추진단과 편안한 삶 추진단에 참여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휴일인 13일 정부 부처 업무 보고를 계속해서 받으면서 경찰청 관계자와 국토해양부 관계자들이 각각 업무보고용 자료를 담은 보자기와 박스, 서류가방을 들고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내 인수위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부처 업무보고 '비공개' 방침을 바쳐 일정 부분을 공개하기로 했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지난 12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갖고 “업무보고 5단계 프로세스의 진행과정을 상세하고도 투명하게 브리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부처별 업무보고 후 종합하는 단계에서 공개하느냐”는 질문에 “그때도 저희가 분석·진단을 해서 언론에 공개할 내용은 전부 공개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공개 시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인수위 업무보고 절차가 ▲부처 업무

‘불통’ 인수위 생각 바뀌나 논란 커지자 정부부처 업무보고 일정 부분 공개키로

보고 청취 ▲분과위별 검토작업 ▲분과위별 국정기획조정분과위 제출 ▲국정기획조정분과위 총괄종합 ▲당선인 보고 등 '5단계 프로세스'로 돼 있는데 2단계인 분과위별 검토작업이 끝나면 공개를 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변인은 “2단계에 접어들면 말씀드리겠다”고 밝힌 뒤 전날 이뤄진 첫날 업무보고 내용 공개 시점에 대해 “조금만 기다려달라. 분석이 다 끝

나야 한다”라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업무보고는 어떤 면에서 그냥 보고를 받는 것이고, 우리가 검토분석해서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이걸 브리핑을 해야겠다는 판단이 서야 한다”면서 “(검토작업이) 끝나는 대로 최대한 공개하겠다”고 거듭 확인했다. 인수위의 업무보고 내용 공개 방침은 첫날 업무보고 내용 공개 시점에 대해 “조금만 기다려달라. 분석이 다 끝

부터 업무보고의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11일부터 시작한 부처별 업무보고와 관련, 국민이 아니라 과거 관행에 기대어 부처의 입장만을 강조하는 데 대해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박선규 당선인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변인은 지난 12일 삼청동 금융연수원 인수위 기자회견 브리핑에서 “(각 부처가) 적극적으로 국민 입장에서 문제를 풀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소극적으로 관의 입장에서 과거 관행에 기대어 문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부분에 대해 박 당선인이 불편한 마음을 분명히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대통령 취임식 2월 25일 국회의사당 취임 준비위부위원장 유정복·행사 감독 윤호진

오는 2월25일 열린 제18대 대통령 취임식은 국회의사당 광장에서 열린다. 제18대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는 13일 1차 회의에서 취임식 장소를 이같이 확정했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삼청동 금융연수원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대통령 취임식 장소를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사당 광장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며 “여기에 의거해 제반 행사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 지난 1992년 제14대 김영삼 대통령 취임식부터 5년 전인 2007년 제17대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까지 역대 대통령 취임식은 모두 국회의사당 광장에서 거행했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취임준비위 부위원장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최측근인 새누리당 유정복 의원이 선임됐다. 인수위 산하 국민대통합위와 청년특별위에는 각각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과 손수조 미래세대위원장 이 새로 합류했다.

앞서 김진선 취임준비위 위원장은 지난 11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 기자회견에서 브리핑을 통해 “취임준비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인 유의원을 포함해 모두 8명으로 구성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나머지 취임준비위원회에는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 인수위 임종훈 행정실장, 강지용 제주대 교수, 윤호진 에이콤인터내셔널 대표, 박명성 신시컴퍼니 대표, 손해리 경기도 문화의전당 사장이 이름을 올렸다. 윤호진 감독은 취임 행사 총감독을 맡을 예정이다. 취임준비위는 정부서울청사 9층에 사무실을 두고 활동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미성빌딩임대

남구 봉선동 대단위 아파트 밀집지역. 유동인구 풍부!

남구 봉선동 남양휴튼 사거리 핵심상권! 25M대로변의 편리하고통.광고효과최고!

임대층 1.2.5층 각 100평, 52평

경장임종 병,의원약국, 금융기관,사무실체인점

임대문의 에스온 공인중개사사무소 (빌딩상가전문 중개)

CP.: 016-261-2305

TEL.: 062-673-7120 / 070-7763-7120

운명철학

人間の 길흉화복이라는 것이 과연 선천적으로 타고나는것일까? 또는 운명적 점지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후천적 노력과 기회로 강호의 영웅호걸이 탄생되고, 21세기 현대문명아래서도 축한기 제대로 못먹고, 신음하는 노후 인생과 빈병들은 정녕 노력을안해서였을까?

여기서 엄청난 사실을 발견할수 있다!

자신의 분수(운명)을 모르고, 분마처럼 날뛰면서 청춘과 일생을 허생 낭사한 결과는 어떠한가? 두번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인생의 흐름에서 참으로 선천과 운명적으로 부여받은 스스로의 복덕과 관운 재운 부부 자식 학운 건강등이 자신의 숙명관에 어떻게 배열되 있는지 참고점점 해보는 것이 지혜있는 삶의 방법입니다.

※단 맞지 않으면 무조건 무료 중궁, 대만, 대한민국 자미두수 대가!

경천동지할 비술인(천문 지미두수)로 수십년을 요람한 경지에서 인생길을 통해 하게 안내함. 역술과 풍수지리 참선의 길 기초부터 무료강의 무료 개인지도 자격제한 없음(무속인, 역술인 환영)

감정강의장소 전남 담양군 남면 지곡리 95-2 (광주법 상류 소재원 주차장 아래 하천변) 철학연수원(진짜금당집)

TEL 061-383-7222 HP 010-4178-8830

강사 柳無山居士

부동산 경매, 유동화 자산매각 전문회사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행동 /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상담전화 정현로이사 010-5879-0005	상담전화 김 종 원 이사 010-8227-7759
물류센터 [전북김제] 대8076㎡ , 건5004㎡ 감정가 25억 최저가 6억 5천	근린시설[수기동] 대1197㎡ , 건722㎡ 감정가 14억 최저가 5억 7천
주유소 [나주남평] 대4428㎡ , 건2553㎡ 감정가 10억6천 최저가 5억4천	신안압해 [횡집, 판매] 대4706㎡ , 건1123㎡ 감정가 18억 최저가 8억
원목[계림동] 대333㎡ , 건803㎡ 감정가 6억7천 최저가 3억7천	상가[신창동] 대 67㎡ , 건 134㎡ 감정가 2억5천 최저가 1억1천
공장 [나주공산] 대29710㎡ , 건1826㎡ 감정가 17억 최저가 8억	숙박시설 [지평동] 대704㎡ , 건2042㎡ 감정가 32억 최저가 22억
공장 [장성동화] 대1983㎡ , 건2320㎡ 감정가 7억 최저가 3억 9천	임야 [전주완산] 대지 20975㎡ 감정가 3억3천 최저가 1억3천

임대 및 매매 김수희 공인중개사 010-8567-4600

▶ 12월31일open 예정인 (주)솔빛마을기행터에서 일제최고의 대우로 유능하고 성실한 인재를 모집니다.

▶ 찬도(여)2명, 설장이(여)1명, 출서빙6명, 매니저(남, 여)2명, 매점(여)1명, 경리(여)1명, 영입부(남, 여)2명

• 복리후생 : 4대보험, 퇴직금, 월4회휴무, 급여 : 일제최고 대우 및 성과상여금

• 근무처 : 나주시남평읍 통원리 171번지 서류접수시 면접, 상담가능(시간예약) H.010-7570-7525

현대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 후 24년째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물건과 고객을 확보하고 있어 항상 신속하고 친절하게 책임감을 갖고 고객 여러분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급히 구하는 물건(매매나 임대)

〈건물구함〉

■ 일반상가 건물 : 3억에서 50억

■ 모텔 및 묵욕당

■ 고시원

■ 다가족주택(원룸, 투룸, 쓰리룸)

〈토지구함〉

■ 지역 : 광산구 도현동 하남동 장수동

■ 면적 : 200평 ~ 300평. • 용도지역:지연녹지 • 용도 : 주차장

■ 최고용도 300평 정도 대형차량진입가능지역 광주시내 전역

〈모텔 매매〉

■ 서구 객실 20개 대출 4억2천 매도가 8억5천 만원

〈상무지구 토지매매〉

■ 매도가 30억 보증금 7억 임대료 1400만원

■ 매도가 45억 보증금 6억 월2900만원

〈상무지구 토지매매〉

■ 중상상업지역 178평, 360평 매매가 협의 후 결정

■ 지연녹지 353평 30m 도로접, 농지전용 완료, 매매가 협의후 결정

〈토지 매도〉

■ 광산구 도현동 자연녹지지역 2397㎡(725평) 평당 95만원

■ 공장 학교용도로 적합

■ 비이동 자연녹지 11,463㎡(3,468평) 평당 70만원

〈시외 매도물건〉

■ 물류창고부지 : 장성군 향룡면, 장성C에서 2.5km 계획관리지역 3200평 평당 45만원 농지전용 건축허가 필

T. 062) 371-1900 , 010-2006-0115

상무 무리병원에서 50m 지점 www.85858949.co.kr